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正體性 探索의 樣相과 意味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李 有 卿

(淑明女大 講師)

要約 및 抄錄

本稿는 대표적 巫俗神話인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택하여, 여주인공들이 자신을 否定하는 ‘여성의 현실’에 어떻게 對應하며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正體性을 探索해 나가는지 살펴보았다. 「바리공주」에서는 ‘나’의 根源을 찾는 旅程을 거치며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딸로서의 바리공주의 모습을, 「세경본풀이」에서는 능동적으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旅程을 통해 平等한 夫婦關係를 만드는 아내로서의 자칭비의 모습을, 「초공본풀이」에서는 홀로 힘겨운 出産과 養育의 과정을 겪어내며 삼 형제를 巫祖神으로 만듦으로써 母系家族을 이루는 어머니로서의 자칭맹왕 아기씨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이로써 이들 巫俗神話의 여주인공들이 사회가 부과한 否定的 正體性和 從屬的 關係를 克服하여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의 二元的 對立을 克服하여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再誕生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核心語: 巫俗神話, 女性正體性 探索,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

I. 머리말

巫俗神話는 巫俗儀禮에서 口演되는 것으로, 女性神格에 대한 敍事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巫俗神話가 建國神話와는 달리 여성이 주된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그 形成과 傳承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敍事 장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 巫俗神話는 고대 사회 이후로 主流에서 疏外되어 왔

1) 예로부터 巫俗을 종교 儀禮로 받아들이고 信仰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었다. 巫俗儀禮를 管掌하는 무당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이 의례의 주된 享有層도

던 여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오랜 기간 동안 口傳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여성의 경험과 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神話가 인간 삶의 原型이 담긴 敍事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巫俗神話는 여성의 삶이 반영된 오랜 淵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女性正體性의 原型을 살피기에 매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巫俗神話의 경우 평범한 여성주인공이 등장하여 힘겨운 試鍊을 거친 후 神으로 坐定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겪는 試鍊도 여성들의 일상적인 노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口演을 통한 傳承 과정에서 일반 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關係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²⁾ 따라서 여성 神格이 등장하는 巫俗神話들의 경우, 家父長制의 이념에서 벗어나 여성의 正體性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積層的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본다.

이에 따라 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巫俗神話 중 女性 神格이 등장하는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女性正體性 探索의 樣相과 그 意味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³⁾ 「바

여성들이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무속의 주된 담당층으로서 生産 및 受容을 맡아왔기 때문에, 무속은 여성들의 일상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종교이다. 따라서 巫俗儀禮에서 불려지던 巫俗神話에도 여성 신격이 많이 등장하며 이들의 來歷談에도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상당 부분 投影되어 있다. 강등학 외 지음(200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pp.305~320.

2) 신화는 과거의 시대적 産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생산된다.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신화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류의 原型的 모델로서 인간과 사회에 행동의 규범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심재중 譯(2003), 『영원회귀의 신화』, 이학사, pp.13~60). 이와 관련하여 시몬느 베이른느는, 신화는 根源的 현실을 再體驗하게 하는 이야기로서, 깊은 종교적 욕구에, 정신적 열망에, 사회적 질서에 의한 구속과 요청에, 현실적 욕구에 副應하는 이야기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시몬느 베이른느, 이재실 譯(1996),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p.99).

3) 이들 巫俗神話에 대한 개별적 연구로 주목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바리공주」: 서대석(1972), 「「바리공주」연구」, <계명논총> 8, 계명대학교; 홍태한(1997), 「서사무가「바리공주」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이현숙(1994), 「「바리공주」무가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이경하(1997),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윤인선(2001), 「「바리공주」의 회생효와 심리적 서사구조」,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화회; 정운채(2004),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

리공주는 孝, 「세경본풀이」는 愛情 追求, 「초공본풀이」는 出産과 養育이 중심 내용인 神話들로, 이들 神話의 여주인공들은 각각 딸, 아내, 어머니가 되기까지 힘겨운 시련을 거친다. 따라서 「바리공주」에서는 주인공인 바리공주의 딸로서의 정체성 탐색의 양상을, 「세경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인 자청비의 아내로서의 정체성 탐색의 양상을, 「초공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인 자지맹왕 아기씨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탐색의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성장 과정에 따른 각각의 존재 樣相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 편의 巫俗神話들을 통해, 여성의 삶의 단계에 따른 正體性 探索의 樣相과 그 意味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正體性 探索의 樣相

인간의 正體性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한 自我 認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出生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關係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주변 사람들과의 關係를 통해 자신의 正體性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⁴⁾ 인간은 모두 出生에서 成年, 婚姻, 죽

회; 강진옥(2005),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세경본풀이」: 박경신(1985),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김화경(1986),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28, 일지사; 좌혜경(1998),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고은지(1999),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임명숙(2000),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연구」,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오정미(2006), 「여성의 환상문학「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초공본풀이」: 최시한(1986),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신월균(1988),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설성경(1992), 「「초공본풀이」의 사사구조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신연우(2009),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4) 현대 정체성 이론을 구축한 에릭 에릭슨에 의하면, 正體性identity은 사회적 關係들을 통해 形成되고 또 명시된다. 그 개념은 개인적 성격의 핵심적 형태와, 그 형태에 대한 개인 의식 둘 다를 포괄한다. 그리고 그것은 본래 타고난 조건,

음에 이르는 삶의 각 단계를 거치는데, 변화된 단계에 따르는 사회적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는 삶의 각 단계에 이르러 그에 맞는 새로운 正體性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곧 成長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正體性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性이다. 性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出生과 더불어 性에 따라 구분되고 그 삶의 樣相도 달라진다. 여성의 경우 그 삶의 영역이 家庭이라는 공간으로 限定되고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도 남성에게 從屬된다. 전통 사회 여성의 경우 그 삶은 한 집안의 딸로 시작되어, 出嫁한 후에는 다른 집안의 아내로, 그리고 그 집안의 代를 이을 子孫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로 이어지며 아버지, 남편, 아들에 從屬된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여성은 生物學的 차이로 인한 남녀 간의 位階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正體性 형성 과정에서도 남성과는 다른 樣相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本稿에서는 여성에 대한 否定的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正體性 探索⁵⁾의 樣相은 어떠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며 여성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던 巫俗神話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巫俗神話인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택하여, 여주인공들이 자신들을 否定하는 ‘여성의 현실’에 어떻게 對應하며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正體性을 형성해나가는지 그 一面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을 버린 부모의 병을 고치

고유의 본능적 욕구들, 특히 받은 능력, 의미 있는 동일시, 효과적인 방어, 성공적인 승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역할들을 모두 통합한 개념이다. 주디스 키건 가디너, 신은경 譯(1988), 「여성의 正體性과 여성의 글」, J. 크리스테바 외 共著, 김열규 외 共譯,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p.221.

- 5) 여기에서 ‘探索’이란 그 主體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旅程을 意味한다. 探索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이른 主體가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正體性을 찾아가는 旅程을 意味한다.

기 위해 길을 떠나는 바리공주를 통해서는 딸로서의 正體性 探索의 樣相을, 부모를 떠나 자신의 配偶者를 찾아 길을 떠나는 자청비를 통해서는 아내로서의 正體性 探索의 樣相을, 妊娠 후 부모로부터 쫓겨나 홀로 出産과 養育의 고통을 겪어지는 자지멩왕 아기씨를 통해서는 어머니로서의 正體性 探索의 樣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以前 세계와 分離되면서 試鍊을 겪고 그 시련을 겪어낸 후에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사회에 再統合되는 分離, 轉移, 統合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⁶⁾ 이들은 모두 15세⁷⁾에 이르러 삶의 커다란 변화에 直面하게 되면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15세는 곧 어린 시절과 분리되어 成人으로서의 義務가 있는 세계로 나아가야

6) 바리공주, 자청비, 자지멩왕 아기씨는 모두 神話의 주인공으로서 出發(分離)-入門(試鍊)-歸還(統合)이라는 英雄的 삶의 軌跡을 보이는데, 이러한 英雄的 旅程은 通過祭儀의 양식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조셉 캠벨, 이윤기 譯(1994), 『세계의 영웅 신화』, 대원사, pp.34~43).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아르놀트 반 겐넵은 장소, 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의 변화에 따른 의례를 가리키기 위해 ‘通過儀禮’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통과의례는 사회와 분리되는 分離separation, 일상을 초월하는 轉移marge, 사회로 還元하는 統合agregation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入社式의 개념과 동일한 意味로 쓰이고 있다(반 겐넵, 전경수 譯(2000),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p.6). 또한 시몬느 바이른느에 의하면 통과제의는 인간을 성숙시켜 완성시켜줄 어떤 상태의 시작이며, 무엇보다도 통과제의를 거치게 될 대상의 存在論的 위치의 변화이다(시몬느 바이른느, 이재실 譯(1996), 『통과의례와 문학』, 문학동네, p.12). 따라서 바리공주, 자청비, 자지멩왕 아기씨가 각각 딸, 아내, 어머니로서 자신의 正體性을 探索하는 樣相을 살피기 위해서는 分離, 轉移, 統合이라는 통과의례의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7) 앞으로 살펴볼게 될 세 편의 巫俗神話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모두 15세가 되어 집을 떠나게 된다. 15세는 여성에게 있어 初經의 나이이므로 性的 成熟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여겨지며, 肉體의 成熟과 더불어 精神的 成熟을 이루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변화의 시기이다. 따라서 巫俗神話에서는 여주인공이 15세가 되었을 때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는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 인생의 다음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시기로,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른이 된 것도 아닌 過渡期의 模糊한 시기이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未定’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겪어내는 과정은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正體性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집을 떠난 여주인공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의 試鍊을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험을 견뎌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시련을 克服하는 과정을 거치며 삶의 지혜를 얻고 이를 통해 內的 成熟을 이루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그러므로 각 작품의 내용을 分離, 轉移, 統合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주인공들이 각각의 단계를 거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어떻게 克服하여 스스로의 正體性과 삶의 방향을 세워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세 편의 巫俗神話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이 사회가 부과한 여성의 正體性에 어떻게 對應하며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正體性을 形成해나가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 딸로서의 正體性 探索

‘나’의 根源을 찾는 旅程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바리공주

「바리공주」는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 巫俗神話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口誦되고 있는 작품이다. 「바리공주」는 傳承地域에 따라 수많은 各篇들이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신화적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는 서울지역 傳承本을 선택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⁸⁾ 論義의 便宜를 위해 「바리공주」의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리공주의 부모가 결혼을 하기 위해 問卜을 하니, 대개년에 하면 삼동궁을 얻지만, 폐길년에 하면 칠공주를 보게 된다는 점괘를 얻는다.
2. 부모 대왕이 年老하므로 대개년을 기다릴 수 없다 하여, 問卜 결과를 무시하고 폐길년에 결혼을 하니 딸만 연이어 여섯을 낳는다.

8) 서대석·박경신 譯註(1996),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13~253.

이 책에 실려 있는 異本은 <바리공주> 異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오산 무녀 배경재의 口演本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傳承本을 대표하는 各篇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료이다.

3. 일곱 번째도 딸을 낳자 그 아기를 後園에 버리는데, 이때 까막까치가 날아와 아기를 보살펴 준다.
4. 후원에 버렸음에도 아기가 죽지 않자, 玉函에 넣어 궁에서 멀리 떨어진 물에 띄워 버린다.
5. 옥함을 발견한 석가세존이 바리공주를 구하여, 비리공덕 할미와 할아버에게 아기를 기르게 한다.
6. 바리공주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그 부모가 병을 얻어 問卜을 하니, 夫婦가 한 날 한 시에 昇遐할 것이니 일곱 번째 공주를 찾으라는 짐괘를 얻는다.
7. 바리공주의 부모가 꿈에 靑衣童子가 나타나 하늘이 아는 아기를 버린 죄로 병을 얻어 죽게 되었으니 아기를 찾아서 삼신산 불사약, 무상신 약려수, 동해 용왕 비례주, 봉래산 가암초, 안이산 수루취를 구해다 먹으면 살 것이라고 한다.
8. 王命을 받은 雷대신이 국왕 兩 마마와 여섯 공주의 封書, 아기의 遺物을 가지고 바리공주를 찾아가니, 바리공주가 양전 마마와 자신의 피가 합쳐지는 것을 보고 血肉임을 확인한 후에 그를 따라가 부모와 만난다.
9. 양전 마마가 모든 신하와 여섯 공주에게 藥水를 얻어오라고 하나 모두 거절하고, 바리공주 혼자만 가겠다고 하여 홀로 약수를 찾아 길을 떠난다.
10. 바리공주가 석가세존에게서 나화를 받아 지옥을 넘어 무장신선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
11.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의 요구대로 물 값으로 물 삼 년 길어주고, 불 삼 년 떼어주고, 나무 삼 년 베어 주어 구 년을 살고, 백년가약을 맺은 후 아들 일곱도 낳아준다.
12. 무장신선과 일곱 아들을 데리고 부모가 사는 나라로 돌아온 바리공주는 자신이 가져온 숭살이, 뽕살이, 살살이, 일영주, 약려수로 죽은 부모를 살려낸다.
13.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린 공의 代價로 무엇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만신의 인위왕(巫祖神)이 되겠다고 하며, 이에 만신의 몸주가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준다.
14. 무장선관, 석가세존, 비리공덕 할미와 할아버 등도 그 공덕을 인정하여 각기 제도를 마련하여 준다.

바리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어긋난 부모와의 關係를 再定立하는 과정을 통해 딸로서의 자신의 正體性을 새롭게 探索해 나가고 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기 위해 艱難한 救藥旅行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찾아나가고, 여행을 끝낸 후에는 되살아난 부모와 사회로부터 딸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후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일곱 번째 딸이라는 이유로 出生과 동시에 버려져 죽음으로 내몰렸으나 超越的 존재의 도움으로 간신히 危機를 넘긴 후에 비리공덕 할미와 할아버지에 의해 키워진다. 그러나 바리공주는 버려졌을 때부터 이미 부모에게는 죽은 딸이며 잊혀진 존재이다.⁹⁾ 바리공주가 다른 이의 도움으로 살아있다고 해도 이때까지의 바리공주는 자신의 根源을 모른 채 살아가는 빈껍데기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자신의 根源인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은 곧 그 존재 가치 자체를 否定당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바리공주를 버린 죄로 병이 들어 바리공주를 찾게 되는 15세 전까지의 기간은 바리공주가 부모와 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져 拒否되었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5세가 되어서야 자신을 찾는 부모를 만나,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오다가 15세에 이르러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삶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否定했던 부모가 그로 인해 병이 들고 나서야 자신을 찾게 된 矛盾된 상황을 拒否하지 않고 받아들인 후, 부모를 살릴 약을 구하기 위해 險難한 旅程을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와의 再會 후에 바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은, 그 부모가 이미 죽을병이 들어 바리공주와 제대로 된

9) 바리공주는 棺을 意味하는 玉函에 담긴 채 물에 띄워 버려지는데, 물결을 타고 흘러간 옥함을 석가세존이 발견하여 구한 후, 인간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養育된다.

“……옥함을 질머지고 쉼문박글 내달으니……한천리 두천리 세천리를 감니다……고개를 넘어가니 압해는 황천강 뒤에는 류사강 까지 여울 피바다에 던지이니…… 난데없는 금거북이 나와서 함장을 질머지고 동해바다로 간 곳을 물을 나라……” 서대석·박경신(1996), 위의 책, pp.230~231.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 바리공주는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不必要했던 잊혀진 존재였다. 그러나 바리공주를 버린 죄로 병을 얻게 되면서 그 부모는 자신들이 버린 딸을 찾아 만나게 되고, 바리공주는 이들을 구할 수 있는 唯一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바리공주가 힘겹게 再會하게 된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 존재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부터 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리공주의 救藥 旅程은 表面的으로는 부모를 살리기 위한 旅程이지만, 窮極的으로는 나를 찾는 旅程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을 떠난 바리공주는 약려수를 찾으러 가는 길에 석가세존을 만나 나화를 얻고 길안내를 받는다.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을 만나러 가는 동안 수많은 鬼神, 冤魂, 地獄의 罪人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悽慘한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화를 흔들어서 그들을 薦度한다. 그리고 서천에 다다라 무장신선을 만난 후에는 그의 요구대로 나무하고, 불 때고, 물 걷는 힘든 노동을 각각 3년씩 9년 동안이나 하고, 무장신선과 결혼하여 일곱 아들을 낳은 후에야 부모를 살릴 약을 구하여 돌아가게 된다. 약려수를 얻어서 돌아오는 길에는 亡者들이 탄 배의 행렬을 보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祝願을 한다.

이처럼 바리공주의 救藥旅行은 무장신선을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 무장신선을 만나 약려수를 얻는 과정, 약려수를 얻어 돌아오는 과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리공주의 여행 목적은 부모를 살리기 위한 약려수를 얻는 일이었으므로 무장신선을 만나서 課題를 遂行하기 전후의 일은 副次的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바리공주의 正體性 探索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救藥旅行의 시작과 끝에서 만났던 冤魂들과 亡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약려수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동과 出産을 하는데,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이며 이를 충실히 遂行한 후에는 바라던 약을 얻는다.¹⁰⁾ 따라서 바리공주는 약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고 出産을 하는

10) 바리공주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굶은일을 해냄으로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巫俗神話의 여주인공들에게 주어지는 試鍊은 대체로 여성의 일상 노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전통사회의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여성에게 賦課된 사회적 역할을 이해한다. 이러한 課題 遂行의 과정은 바리공주가 부모에 대한 딸로서의 도리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出生과 더불어 어긋났던 부모와의 關係를 再定立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딸로서의 正體性에서 벗어나 바리공주가 원하는 자신만의 길을 探索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救藥旅行 시작과 끝 부분의 사건들이다. 바리공주는 구약여행의 과정에서 수많은 怨靈들과 亡者들을 만나 그 슬픔과 絶望을 어루만져 좋은 길로 이끌어 준다. 바리공주는 그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버려졌던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治癒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아간다. 이러한 治癒와 깨달음의 과정이 있었기에 바리공주는 부모가 주려는 世俗的 富貴榮華를 거부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根本적인 문제인 靈魂의 救援을 위해 만신의 인위왕이 되겠다고 함으로써 스스로의 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행을 마친 바리공주는 이미 자신의 根源을 몰라 방황하던 아이가 아니며 부모의 인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主體的인 존재로 거듭난 상태로, '나'의 根源을 찾아가는 旅程을 거쳐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나'로 再誕生한 상태이다. 바리공주는 부모는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은 부모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딸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에게 씌워졌던 否定的 인식을 자신의 노력으로 거두어 내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으로써 부모와의 從屬的 關係의 싹을 끊어 내며 스스로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

영역이 요리나 바느질, 생활 노동 등의 집안일이었기 때문이다. 일반 여성들이 각자의 삶의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일들이 課題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바로 여성의 삶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러한 일들을 잘 수행하여 그 대가로 부모를 살릴 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성들이 하는 일상의 노동과 출산이 우리 사회를 維持하고 다음 世代를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장신선이 요구한 대가를 치른 후 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 약수를 얻으려 하자, 날마다 길던 물이 약수이며 자신이 늘 오르던 뒷동산의 꽃들이 바로 부모를 살릴 약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2. 아내로서의 正體性 探索

- 능동적으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旅程을 통해 平等한 夫婦關係를 만드는 자청비

「세경본풀이」는 여주인공인 자청비의 一代記를 그리고 있는 神話로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農耕起源神話로 알려져 있다.¹¹⁾ 「세경본풀이」는 여주인공인 자청비가 문도령과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 겪게 되는 시련이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성중심의 男女結緣談적 성격을 지닌다. 그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

1. 집진국 대감과 자치국 부인은 집안은 富裕하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던 중에, 권제삼문을 받으러 온 대사의 말을 듣고 동편을 상주사로 원불수륙재를 드린다.
2. 夫婦가 자식을 얻기 위해 정성을 들였으나 施主한 물건이 백 근이 못 차서 딸을 낳는다.
3. 열다섯 살이 된 자청비는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만난다.
4. 문도령을 보고 반한 자청비는 男裝을 한 후에 자신을 자청비의 남동생이라 속이고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떠난다.
5. 자청비와 문도령은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하는데, 문도령이 장가들기 위해 하늘로 가게 되자 자청비도 함께 집으로 돌아오다가 中途에서 목욕할 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6. 자청비의 집으로 온 문도령과 자청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因緣을

11)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에서만 傳承되고 있으며 農耕과 牧畜神의 起原을 설명해 주는 신화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제주도 신화 중에서도 가장 긴 내용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화에서는 문도령과 자청비, 정수남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며 이들이 각각 상세경과 중세경, 하세경이 되는데,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자청비이다.

12) <세경본풀이>의 경우에도 異本이 여러 편 있으나 각 異本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현용준 採錄本을 대상 자료로 한다. 현용준·현승환 譯註(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196~259.

- 맺고, 문도령은 본메(信物)를 남기고 하늘로 돌아간다.
7. 자청비네 집의 하인으로 있는 정수남이 소와 말을 각각 아홉 마리씩이나 잡아먹고 나서, 자청비에게 혼이 날까 봐 산에서 문도령이 선녀들과 노는 것을 보다가 소와 말을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을 한다.
 8. 자청비는 문도령을 보았다는 정수남의 말을 듣고 함께 산으로 가는데, 정수남이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자청비가 자신을 劫竊하려는 정수남을 죽인다.
 9. 자청비의 부모는 일 잘하는 남종을 죽였다 하여 자청비를 집에서 내쫓는다.
 10.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男裝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功을 세운 후 꽃감관의 사위가 되어 얻은 생명꽃으로 정수남을 살린다.
 11. 정수남이를 살려서 집으로 돌아온 자청비는,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하여 부모로부터 다시 내쫓긴다.
 12. 집에서 떠나 떠돌던 자청비는 주무할망을 만나 그 수양딸이 되고, 마침 하늘나라 문도령에게 갈 비단을 짜게 되어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짜 넣는데, 이것을 보고 자청비를 만나러 내려온 문도령은 자청비를 보지 못하고 하늘로 되돌아간다.
 13. 이 일로 주무할망집에서도 쫓겨난 자청비는, 문도령이 내려 보낸 선녀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난다.
 14. 자청비와 재회한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문도령의 부모가 내는 어려운 시험을 通過한 후 마침내 문도령과 결혼한다.
 15. 서천꽃밭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한 자청비는 문도령을 그곳에 보내 보름씩만 사위노릇을 하게 하는데,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그에게 편지를 써서 돌아오게 만든다.
 16. 자청비를 탐내는 선비들의 모략으로 문도령이 죽자,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다가 문도령을 살려낸다.
 17. 하늘나라에 變亂이 일어나자,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죽음의 꽃으로 亂을 鎮壓한다.
 18. 자청비는 亂을 鎮壓한 功勞로 五穀 씨를 얻어 문도령과 함께 地上으로 내려온다.
 19. 자청비는 지상에 내려와 굶어 죽어가는 정수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위해 밥을 준 늙은이의 밭에는 豊年을 주고, 밥을 안 준 아홉 형제의 밭에는 凶作을 준다. 그리고 정수남을 牧畜神으로 坐定시킨다.

자청비는 사랑의 대상인 문도령을 만난 후 그와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아내로서 자신의 새로운 正體性을 探索해나가고 있다. 자청비는 연인인 문도령과 몇 차례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힘겨운 과정을 적극적으로 克服해 나가며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문도령과 시부모로부터 아내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통해 平等的 夫婦關係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15세에 이르러 性에 눈을 뜨게 된 자청비는 빨래를 하러 집 밖으로 나왔다가¹³⁾ 때마침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만나 그에게 반하게 된다. 자청비는 자신이 반한 문도령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여자가 무슨 글공부를 하느냐며 나무라는 부모를 설득하여 男裝을 한 후 자신을 자청비의 남동생이라 속이고 그와 함께 길을 떠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는데, 이를 통해 문도령과의 關係를 ‘벗’으로서 시작하게 되어 平等的 입장에서 서로 友情을 나누며 공부를 하고 더불어 세상 경험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定婚者가 있던 문도령이 하늘로 떠나게 되자 오는 길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戀人의 사이로 발전하여 서로 證票를 나누어 갖고 아쉬움 속에 헤어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헤어진 연인을 만나기 위한 자청비의 시련이 시작된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자청비는 문도령을 보았다는 정수남의 말에 속아 그를 따라나섰다가 자신을 劫姦하려는 정수남을 죽이게 된다. 그러나 집에서는 일 잘하는 남종을 죽였다 하여 자청비를 쫓아낸다. 이에 자청비는 男裝을 하고 생명꽃이 피어있는 서천꽃밭에 들어가 부엉새를 잡아주는 功을 세워 꽃감관의 사위가 된 후에 생명꽃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린다. 그런

13) 자청비는 손이 고운 여종을 보고 어찌해서 손이 고운지를 묻게 되는데, 이처럼 外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性的 自覺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자청비는 빨래를 해서 손이 곱다는 여종의 말을 듣고는 지금까지 安住하던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유경(2006),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적 의미」,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pp.39~40.

데 이번에는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 하여 또다시 쫓겨난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청비는 더 이상 順從的인 딸이 아니며 그들이 堪當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拒否의 대상이 되 것이다. 또한 자청비는性に 눈을 뜬 結婚 適齡期의 여성으로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으므로, 정수남의 일을 계기로 하여 부모와 완전히 分離되어 헤어진 연인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다.

집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다니다가 주무할망의 양딸이 된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보낼 비단에 자기 이름을 짜 넣어 문도령을 내려오게 한다. 그러나 자신을 보러온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문도령이 되돌아가게 되고 이일로 주무할망 집에서도 쫓겨난다. 이처럼 자청비는 여러 차례 쫓겨나는 試鍊을 겪는데 이는 자청비가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順從의 美德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와 문도령에 대한 자청비의 順從的이지 않은 행동 때문에 거듭 쫓겨나는 시련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는 이러한 상황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주무할망의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문도령의 심부름으로 내려온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드디어 문도령을 만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문도령과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도령의 부모가 내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청비는 “선 자 구덩이 파 숯 선 심을 묻어 불을 피워 놓고 불 위에 칼날이 선 다리를 놓아서 타 나가고 타 들어와야¹⁴⁾”하는 어려운 課題를 해낸 후에야 문도령과 결혼하여 그 아내로 인정받는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결혼한 후에도 자신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자기 대신 꽃감관의 사위노릇을 하며 서천꽃밭에서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을 거짓 편지로 불러들이고, 자신을 탐내는 선비들의 계략으로 죽게 된 문도령을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살리며, 하늘에서 일어난 變亂도 선천꽃밭의 수레말 망약심꽃으로 鎮壓한다. 그런 후에는 문도령과 더불어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시부모와 남편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문도령과 대등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청비는 연인인 문도령과 헤어진 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힘겨운 과정을 적극적으로 克服해 나가며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지켜냄으로써 아

14) 현용준·현승환(1996), 앞의 책, p.219.

내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正體性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자칭비와 문도령의 關係는 벗에서부터 시작되어 연인이 되고 이어서 夫婦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연유로 자칭비는 문도령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며 平等的 입장에서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칭비는 문도령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결혼 후의 危機 克服에 있어서도 責任感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家父長的 家族制度의 틀에서도 벗어난다. 이를 통해 자칭비는 남편과 對等的 아내로서 平等的 夫婦關係를 만들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로서의 正體性 探索

- 出産과 養育의 旅程을 홀로 감당해냄으로써 母系中心의 家族 關係를 이루는 자지맹왕 아기씨

「초공본풀이」는 제주도에서 傳承되는 「제석본풀이」형 巫俗神話이다. 「제석본풀이」는 「당금예기」등으로도 불리며 全國적으로 傳承되는 神話인데, 그 母系的 성격이 가장 강한 「초공본풀이」를 택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¹⁵⁾ 「초공본풀이」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1.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천하임정국대감과 지하짐진국부인은 황금산도단땅 대사가 施主하고 佛供을 드리면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施主

15) 서대석은 전국에서 傳承되는 「제석본풀이」형 무가들을 모아 그 巫歌圈을 區劃하고 각 巫歌圈의 특징을 검토하였다(서대석(1980), 「제석본풀이 연구」,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pp.27~69). 이에 의하면 <제석본풀이>형 巫俗神話는 그 圈域別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동북지역에서 전승되는 이본들은 父子關係가 강조되어 父系社會의 성격이 浮刻되며, 서남지역에서 전승되는 異本들은 母系的 성격이 강조된다(서대석(1980), 위의 책, pp.195~196). 이러한 서남지역 異本들 중에서는 「초공본풀이」가 모계적 성격이 가장 강한데, 이는 제주도 여성의 主體的인 성격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초공본풀이」중 안사인본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현용준·현승환 譯註(1996),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40~81.

할 준비를 한 후에 황금산으로 떠난다.

2. 백일 불공을 드린 후 布施를 점검하니 한 근이 모자라 女兒를 접지받게 되고, 곧 예쁜 여자아이를 出産하여 이름을 노가단풍 자지멩왕 아기씨라고 짓는다.
3. 아기씨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職分을 수행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자 아기씨를 살창 안에 가두고 느린덕정하님에게 키우게 한다.
4. 이때 주지대사가 삼천 선비에게, 자지멩왕 아기씨에게서 권제삼문을 받아 오면 3천 냥을 모아 주겠다고 하니, 대사의 제자인 주자선생이 자청하여 중의 복장으로 아기씨를 찾아간다.
5. 주자선생이 아기씨의 집에 도착하여 요령을 세 번 쳐서 잠긴 살창을 열고 아기씨의 머리를 쓸어 妊娠시킨 후 가버린다.
6. 아기씨가 몸이 좋지 않아 계집종이 진갈을 보내 그 부모가 돌아오는데, 아기씨의 妊娠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아기씨를 계집종과 함께 쫓아낸다.
7. 집에서 쫓겨난 아기씨는 계집종과 검은 암소를 데리고 산과 바다를 건너 절에 당도한다.
8. 아기씨는 주자선생을 만나 證票를 확인하고 그가 낸 시험을 통과한 후 그의 말대로 불도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9. 아기씨는 불도 땅에서 양쪽 거드랑이와 가슴으로 아들 삼 형제를 낳아 기르는데, 삼 형제가 5, 6세가 되어 아버지를 찾자 좀 더 커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10. 삼 형제는 15세에 科擧에 應試하려 떠나는데, 삼천선비의 謀害를 받고 서도 배좌수와 팔죽할미의 도움으로 과거에 합격한다.
11. 삼천선비가 삼 형제를 중의 아들이라 謀害하여 다시 落榜하니, 상시관이 활쏘기 과제를 내고 삼 형제가 활을 쏘아 맞춰 과거에 합격한다.
12. 삼천선비가 계집종에게 노비문서를 돌려주겠다고 피어 노가단풍 아기씨를 깊은 궁에 가두고 삼 형제에게는 죽었다고 거짓 고하게 한다.
13. 삼 형제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아버지인 주자선생을 찾아가고 그에게서 巫具를 받고 어머니를 구할 방도를 얻어 어머니를 구출한다.
14. 삼형제가 동해바다 대장장이 아들에게 무구와 신칼을 만들게 하고 巫祖神이 되어, 일흔 다섯 자 칼로 삼천 선비를 죽이고 원수를 갚는다.
15. 유정승 따님이 전생팔자를 그르치고 무당이 되어 말쑥 부장젓집의 죽은 딸아기를 살려낸다. 유정승 따님 아기는 백근이 차므로 삼시왕으로부터

무구를 받아 굿을 잘하여 천하를 올린다.

자지멩왕 아기씨는 妊娠 후 집에서 쫓겨나 홀로 자식을 낳아 기르며 그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正體性을 探索해 나가고 있다. 자지멩왕 아기씨는 부모나 남편의 도움 없이 出産과 養育의 과정을 홀로 감당해냄으로써 자식들로부터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을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자지멩왕 아기씨는 15세가 되었을 때, 일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된 부모에 의해 살창 안에 갇히게 되는데, 性的 成熟의 시기에 도달한 딸을 가두는 것은 여성의 性を 監視하고 抑壓하여 支配하고자 하는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자지멩왕 아기씨가 처한 從屬的 위치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부모가 가두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神通力으로 살창을 열고 들어온 주자선생에 의해 아기씨가 妊娠을 하게 되고, 부모는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부모의 뜻을 어기고 婚前 妊娠을 하게 된 자지멩왕 아기씨는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 내쫓긴다. 아기씨가 여성이 지켜야 할 社會的 規範을 어기게 되자 그 존재가 否定되고 부모와의 關係도 斷絶되며 苛酷한 分離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내쫓긴 아기씨는 하녀와 검은 암소를 데리고 집을 떠나는데, 검은 암소는 妊娠을 한 자지멩왕 아기씨가 潛在的으로 지니고 있는 生産性을 象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집을 떠난 자지멩왕 아기씨는 出産을 위해 주자선생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험난한 旅程을 거친다. 그러나 어렵게 만난 주자선생은 證票를 확인하고

16) 바리공주나 자청비와는 달리, 자지멩왕 아기씨는 집을 나올 때 검은 암소를 끌고 나오는데, 이는 妊娠을 한 자지멩왕 아기씨가 지니는 生産性과 豊饒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유경(2006), 앞의 논문, p.59). 이때 검은 암소는 여성적 원리와 상통하는 달의 原理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진다. 달은 週期에 따라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여성이 月經을 하고 妊娠을 하며 보이는 변화와 相通하고, 또한 농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女性的 豊饒를 상징한다고 여겨졌다. 검은 암소는 바로 이러한 달의 여신이 지닌 母性的 面貌가 再現된 동물로 여겨진다. 에스터 하딩, 김정란 譯(1996), 『사랑의 이해-달 신화와 여성의 신비』, pp.90~95.

夫婦 確認 시험을 거치고 나서도, ‘중은 夫婦 살림을 차리지 않으니 불도땅에 가서 살라’고 하며 아기씨를 받아주지 않는다. 부모에게 내쫓긴 후 찾아간 주자선생마저 아기씨에게 도움을 주지 않자, 아기씨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는 出産과 養育을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긴 사회적 인식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자지맹왕 아기씨는 남편인 주자선생과의 從屬的 關係에서 벗어나 出産과 養育에서 獨自性과 自律性을 갖게 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正體性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게 된다.¹⁷⁾

불도땅에 들어간 자지맹왕 아기씨는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甘受하며 오른쪽 겨드랑이로는 큰아들을, 왼쪽 겨드랑이로는 둘째 아들을, 가슴으로는 막내아들을 차례로 낳는다.¹⁸⁾ 세 아들이 모두 아기씨의 몸을 모질게 뜯어 태어나는 것은 出産의 고통을 極大化시켜 표현한 것이다.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出産은 社會의 維持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出産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에게 있어서 죽음에 比肩되는 고통을 주는 시련이며, 실제로 다수의 여성이 出産 중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出産은 여성만이 가진 능력이며 出産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인간 사회에 있

17)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본원적인 모성성(생명 창조와 생산 능력)에 가부장제의 이념이 덧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 창조와 생산의 능력은 남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여성의 독자적인 능력이었으나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으로 이러한 여성의 능력이 남성의 것으로 전유되는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여성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그 과정 또한 여성의 시련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화들 속에서 독자성을 지닌 여성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초공본풀이」도 그러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신화에서 남성배우자의 존재감을 모호하게 하고 그 역할이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명 창조와 생산을 여성의 고유한 능력으로 보고 출산과 양육에서의 여성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경(2006), 앞의 논문, pp.51~54.

18) 겨드랑이로 出産을 하는 것은 佛敎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예로 釋迦가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出生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釋迦의 이러한 비범한 誕生은 그의 위대함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 작품에서는 삼 형제의 아버지가 중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의 非凡함을 드러내고 있다.

어서 매우 큰 意味를 지닌다. 자지멩왕 아기씨는 죽음에 버금가는 出産의 고통을 홀로 甘受하며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새로운 생명을 誕生시킨다. 그런 힘겨운 과정을 거쳐 자식을 낳음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正體性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기씨는 자신이 낳은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데, 새 생명을 誕生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식을 보살피고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지멩왕 아기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글재주가 뛰어난 人材로 키워냄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遂行하고 있다.

그런데 15세가 된 삼 형제가 科擧를 보려 하자 이들의 뛰어난 능력을 猜忌한 삼천선비가 이들을 방해하고 謀陷하여 연이은 시련을 겪게 된다. 삼천선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한 삼 형제는, 그들을 猜忌한 삼천선비로 인해 자지멩왕 아기씨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外祖父를 통해 아버지를 찾아간 후 어머니를 구할 방도를 얻는다. 그리고 삼 형제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곳을 처음 試演한 후 巫祖神이 되어 자신과 어머니에게 시련을 준 삼천선비를 벌한다. 이처럼 「초공본풀이」에서는 자지멩왕 아기씨와 삼 형제와의 母子關係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난다. 妊娠만 시킬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아버지는 排除된 채 母子 간의 關係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삼 형제는 長成할 때까지 아버지를 찾지 않으며¹⁹⁾, 어머니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야 어머니를 구할 方道를 얻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러므로 삼 형제에게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이며, 父系 血統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삼 형제가 世俗的인 立身出世의 길을 버리고 巫祖神이 되는 것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곳을 하기 위해 전생팔자를 그르

19) 삼 형제는 어릴 때 예비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자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기는 하지만, 長成할 때까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는다. 父系가 강조되는 동북지역 異本의 경우 아버지를 찾아가 그 血肉임을 인정받는 과정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지만, 「초공본풀이」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아 母系的 성격이 강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20) 이때 삼 형제의 父系血統은 이들이 시련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중의 자식'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겨낸다는 서사 진행은 곧 當代 社會의 儒敎의이고 男性中心的인 성격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삼 형제는 중의 자식이면서도 巫祖神이 됨으로써 자신들에게 시련을 준 父系血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천선비가 자기맹왕 아기씨를 監禁하는 사건은 삼형제에게 있어 어머니인 자지맹왕 아기씨가 어떤 意味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5세의 소녀에서 세 아들의 어머니로 변모하기까지 자지맹왕 아기씨는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克服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責任感 있고 強靱한 어머니로 거듭나며 아들들로부터 어머니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시련을 거침으로써 변화된 위치에 맞는 새로운 正體性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자지맹왕 아기씨는 부모나 남편으로부터는 거부당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식들을 낳고 길러냄으로써 母系 中心의 새로운 家族 關係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Ⅲ.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正體性 探索의 意味

지금까지 살펴본 세 편의 巫俗神話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삶의 커다란 변화에 直面하여 그 시기에 자신에게 缺乏되어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된다. 부모에게 버려져 자신의 根源을 모르고 살아왔던 바리공주의 경우는 딸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正體性을, 性에 눈을 뜬 시기에 문도령을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된 자청비는 아내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正體性을, 妊娠을 하여 곧 出産을 하게 된 자지맹왕 아기씨는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正體性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探索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힘겹고 위험한 상황을 잘 克服하고 內的 成長을 이루어 삶의 다음 단계에 걸맞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전의 자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바리공주, 자청비, 자지맹왕 아기씨는 모두 이러한 正體性 探索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거듭난다. 그러므로 이들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正體性 探索의 樣相을 통해 女性正體性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다양한 인식을 살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洞察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正體性 探索의 意味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1. 否定的 正體性和 從屬的 關係의 克服

-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正體性을 찾아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여성들

지금까지 살핀 세 편의 巫俗神話에서 여주인공들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모두 그 존재 자체가 否定되거나 不完全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主體性을 인정받지 못한 채 從屬的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바리공주와 시주한 물건이 모자라서 딸로 태어나며 이후 부모의 뜻을 어겼다 하여 가차 없이 내쫓기는 자청비와 자지맹왕 아기씨의 모습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否定的 인식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세 편의 巫俗神話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버려지고 내쫓기는 과정에서도 끈끌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고 있다.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서 버려지지만 그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홀로 救藥旅行을 마치고 부모를 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立證하고 있는 바리공주, 順從的이지 못한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쫓겨나지만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나가는 자청비, 부모의 뜻을 어기고 婚前 妊娠을 하여 쫓겨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出産과 養育의 試鍊을 堪當해내는 자지맹왕 아기씨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否定的 인식에 挫折하거나 자신이 처한 從屬的 위치에 萎縮되지 않고 사회가 賦課한 여성의 正體性에서 벗어나 새로운 正體性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바리공주, 자청비, 자지맹왕 아기씨는 모두 자신이 속했던 이전 세계에서 벗어나, 시련을 통해 內的 成長을 이루며 主體的인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행한 孝의 대가를 받지 않고 부모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딸로서의 바리공주나, 能動的으로 자신의 사랑을 追求함으로써 平等的 夫婦關係를 이루는 아내로서의 자청비, 出産과 養育의 어려움을 스스로 堪當해냄으로써 母系的 家族關係를 이루는 어머니로서의 자지맹왕 아기씨의 모습은, 이들이 여성들이 처해있는 從屬的 關係의 抑壓에서 벗어나 主體的인 關係를 이룬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巫俗神話의 여주인공들이 보여준 女性正體性 探索의 樣相을 통해, 이들이 사회가 부과한 여성의 正體性과는 다른 모습의 女性正體性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성의 正體性은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²¹⁾ 이 여주인공들은 자신의 正體性을 探索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부과한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여성적 지위와 역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否定的 인식이나 남성과의 從屬的 關係는 克服하며 자신의 正體性을 主體的으로 만들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삶'과 '죽음'의 二元的 對立의 克服

-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고 他人을 救援하는 존재로 再誕生하는 여성들

지금까지 살펴본 세 편의 巫俗神話에서 여주인공들은 모두 試鍊의 과정을 거치며 '삶'과 '죽음'의 二元的 對立을 克服한다. 죽음의 공간에 다녀오거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어내는 과정을 거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새로운 생명을 誕生시킴으로써, 삶과 죽음을 다른 것으로 보는 視角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릴 약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공간인 서천에 다녀오고, 자청비는 정수남과 남편을 살리고 하늘의 變亂을 平定하기 위해 삶과 죽음이 共存하는 공간인 서천꽃밭²²⁾에 다녀오며, 자기맹왕 아기씨는 세 아들을 出産하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 이를 통해 바리공주는 죽었던 자신의 부모를 되살리고 亡者들

21) 여성의 정체성을 生物學的 側面이 아닌 社會學的·歷史的 視角으로 볼 때, 여성의 정체성은 남성들보다 더 融通性 있고 相關的이며 여성의 性 正體性은 內向性을 지녀 남성들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女性正體性은 流動的이고 彈力的이며 '하나의 과정'으로서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디스 키건 가디너, 신은경 譯(1988), 앞의 책, pp.220~228.

22) 서천꽃밭은 巫俗神話에 주로 등장하는 異界로, 사람의 생명을 孕胎시키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생명꽃'들이 피어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인간의 생명을 孕胎시킬 수 있는 '생불꽃',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수레멜망약심꽃',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환생꽃'이 피어있는 곳으로, 生과 死가 共存하는 生命源泉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意味를 지닌다(이수자(1988), 「제주도 巫俗神話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p.188~191). 자청비의 경우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에 갔다가 그곳 꽃감판의 사위가 되고, 정수남을 살릴 환생꽃을 얻어서 돌아온 이후에도 남편이 된 문도령을 구하고 하늘나라의 變亂을 해결하기 위해 서천꽃밭에 드나들게 된다.

을 救援하며, 자칭비는 정수남과 남편을 되살리고 하늘의 亂을 平定한다. 그리고 자지맹왕 아기씨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세 아들을 낳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誕生시키고 있다.

이처럼 이들 巫俗神話의 여주인공들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살아 있는 존재로서 죽음의 공간에 들어가 삶의 노동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바리공주, 삶과 죽음이 共存하는 공간인 서천꽃밭을 自由自在로 드나들며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는 자칭비, 그리고 씨앗이 죽어서 새 생명을 틔우듯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어내며 세 아들을 낳아 기르는 자지맹왕 아기씨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삶에는 이미 죽음이 內包되어 있고 죽음에도 삶이 內包되어 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循環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거침으로써 스스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이를 통해 더욱 강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어 부모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孕胎하여 出產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들 巫俗神話의 여주인공들이 거치는 죽음은 문학적으로 볼 때 삶의 이전 단계의 죽음이라는 象徴의 意味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기 전의 자신이 죽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선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여주인공들이 이러한 죽음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再誕生했다는 것을 明確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誕生은 內的 成熟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들은 시련을 거쳐 얻은 內面的 成長을 통해 스스로도 다시 태어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과정의 하나이며 그것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올바른 內的 成長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이 여주인공들의 旅程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巫俗神話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초공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 신화들에 나타나는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女性 正體性 探索의 樣

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의 關係를 자신의 노력으로 再定立한 후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딸의 모습을, 자칭비는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를 끝까지 지켜 사랑을 이루어냄으로써 平等的 夫婦關係를 이루는 아내로서의 모습을, 자지명왕 아기씨는 홀로 힘겨운 出産과 養育의 과정을 겪어내며 삼 형제를 巫祖神으로 만듦으로써 母系中心의 새로운 家族을 이루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세 편의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正體性 探索의 樣相은 女性的 正體性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다양한 인식과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洞察의 一面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이 여주인공들은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한 否定的 正體性和 남성에 대한 從屬的 關係에서 벗어나, 스스로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正體性을 찾아 새롭게 만들어어나가고 있다. 또한 正體性 探索의 旅程에서 ‘삶’과 ‘죽음’의 二元的 對立을 克服하여 강한 생명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고 他人을 救援하는 존재로 再誕生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은 여성들로 하여금 女性正體性을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여성들의 肯定的이고 主體的인 自我正體性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意味를 지닌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

1. 資 料

서대석·박경신 譯註(1996),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현용준·현승환 譯註(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 論 著

강등학 외 지음(200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pp.305~320.
강진옥(2005),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pp.307~345.

- 신연우(2009),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pp.7~33.
- 염원희(2010),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pp.305~333.
- 윤교임(1996), 「여성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pp.1~106.
- 이경하(1999),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pp.151~180.
- 이수자(1988), 「제주도 무속신화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p.1~234.
- 이유경(2006),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pp.1~81.
- 이현재(2007), 『여성의 정체성-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책세상. pp.1~179.
- 미르치아 엘리아데, 심재중 譯(2003), 『영원회귀의 신화』, 이학사, pp.1~189.
- 반 겐넵, 전경수 譯(2000),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pp.1~312.
- 시몬느 베이른느, 이재실 譯(1996),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pp.7~214.
- 조셉 캠벨, 이윤기 譯(1994), 『세계의 영웅 신화』, 대원사, pp.5~383.
- 좌혜경(1998), 「차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pp.181~199.
- 쥬디스 키진 가디너, 신은경 譯(1988),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J. 크리스테마 외 共著, 김열규 외 共譯,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pp.218~237.
-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譯(2011),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pp.7~172.

■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 of the Quest for Female Identity in Shamanistic Myths

— Focusing on 'Princess Bari', 'SeGyeong-Bonpuri', 'Chogong-Bonpuri' —

Lee, Yu-kyung

This thesis chose Korean representative shamanistic myths -'Princess Bari', 'SeGyeong-Bonpuri', 'Chogong-Bonpuri'- to investigate how the heroine respond to the 'reality of women' denying female identity, and how they search for the identity as a daughter, a wife, and a mother. In 'Princess Bari', Princess Bari, the heroine, showed her female identity as a daughter making 'a road on her own', while taking a journey to find the root of 'herself'. In 'SeGyeong-Bonpuri', Jacheongbi showed her female identity as a wife establishing equal husband and wife relationship by taking a journey to complete love actively. In 'Chogong-Bonpuri', Jajimengwang-Ahgissi showed her identity as a mother who suffered from har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by herself and made three sons as ancestral gods of shamanism, and consequently created a maternal family.

The aspects of the quest for female identity in the shamanistic myths are meaningful in the point that it was possible to look at insight provided by women themselves regarding 'life as a woman'. the heroine in the shamanistic myths freed themselves from negative female identity in society and from dependence on men, and discovered their identity as a daughter, a wife, and a mother to make themselves newly. By overcome dualistic conflict between 'life' and 'death' in the journey of finding their identity, they were born as a being to give a new life to their family. In addition, they became the salvation of others. Their characteristics showed women's various recognition on female identity.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y can give good impact on the positive and leading creation of female self-identity.

※ Key-words : Shamanistic Myths, the Quest for Female Identity, 'Princess Bari', 'SeGyeong-Bonpuri', 'Chogong-Bonpuri'